



Be responsible coder!

정영은/Jeong Yeongeun/鄭 永 恩

마지막 수정 일자 : 2023 - 05 - 22

#웹 퍼블리셔 #신입



"책임감 있는 퍼블리셔."

I'm get ready!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협업이 준비된 책임감 있는 퍼블리셔를
원하신다면

a0257942@gmail.com

010-3945-5729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portfolio link :

My Profile

https://yeong1110.github.io/profile/



profile

yeong1110



GitHub에 연결해 미리보기

자기소개서 link :



자기소개서

About Me



Career (총 11개월)

2019.02~2019.12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Certificate

2021 ITT 일어전문번역 2급



Education

2019 수원대학교 일어일문과 졸업

2023 GTQ 1급

2023 웹디자인 기사사

2023 UI/UX웹퍼블리셔&프론트엔드(React,JS) 실무



Used Tool & Skill

Tool

Github VisualStudio PhotoShop Illustrator Figma

Skill

HTML5 CSS3 Scss Javascript JQuery React Php myadmin

Solution

Cafe24

Skill Chart

80

CSS

80

HTML

50

JQuery

40

JavaScript

30

react

20

php

▶ 표

Bio

배움을 향한 끝없는 열망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제 삶의 동력원입니다.

특히나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따라서 전공도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 저는 나름의 지침을 세웠습니다. 제 전략은 무조건 많이 듣고, 읽어서 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영상을 보며 언어를 제 것으로 만드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원래 졸업요건은 N2까지였지만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N3부터 시작해 N1까지 따내는 것에 성공했고, 영어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 모의 토익에서 300점을 올린 성과를 냈습니다.

제 전공을 살리고 싶어 번역 자격증에도 도전했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제 생각보다 많은 실력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저는 매일 새로운 시련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력을 기르며 새로운 단어를 계속해서 연구한 끝에, 제 손엔 합격증이 들려있었습니다.

언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면서도 큰 즐거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것은 ‘UI/UX 웹퍼블리셔&프론트엔드(React, JS) 웹 개발 실무’를 배울 때도 똑같았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기술이었지만 저는 코딩도 결국은 언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그런 제 생각은 웹 기사사 자격증과 함께 증명되었습니다.

선택하여 집중하라.

저는 하고 싶은 것은 있었지만 되고 싶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열망도, 욕심도 없는 채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고 길여지는 취업 준비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한 번씩 더 고민해라. 그리고 이 선택이 왜 YES이고 왜 NO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저는 제가 출발선에서조차 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한 여정 중에서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획부터 시작해 UI/UX 전반, 디자인, 퍼블리싱의 개념과 실무, 그리고 MY SQL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리 사용법과 react를 배웠습니다. 처음 배우는 코딩은 당연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끝까지 마치리라 ‘선택’했고 어려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연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게 ‘집중’한 결과 서서히 코딩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퍼블리셔를 제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퍼블리셔를 ‘선택’하여 코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꼼꼼하게 보는 안목

설 명절 선물 세트 판촉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돌러보시는 고객분마다 “이거 카드 할인이 되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카드 할인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주로 나이가 높은 고객층을 이루는 마트였던지라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상황을 빠르게 알아챈 저는 곧바로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은 제가 고객이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이것은 카드 할인 00%가 되며, 이러이러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하는 손님들이 늘어나며, 설명하기 전보다 판매량이 50%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놓치기 쉬운 정보, 작은 것이라도 설명해드리면 고객이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무엇이든 꼼꼼하게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으며 오타와 오류를 더 빨리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시간 관리

저는 원래 게으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웹 퍼블리셔 + 프론트엔드 국비 교육을 신청하며, 이번에는 지각하지 말아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교육 시간은 9:20~6:00까지이었지만, 힘든 일정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회사에 가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각하지 않을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각하지 않게끔 시간을 조절해서 다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각 0회를 달성할 수 있었고, 제 시간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퍼블리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미와 직업은 별개입니다. 잘하는 것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100%의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일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일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곧 직업의식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직업의식이 있는 퍼블리셔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정수를 200% 활용해 알아부를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절 뺏아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My Favorite

🎵 music 🎮game 🐾 something cute